

## 歸因理論의 비평적 고찰 및 個人-社會的 水準으로의 확대모형 제안

崔 筍 英

中央大學校 心理學科

歸因理論은 개인이 자신 및 타인의 행위에 대해 구성하는 인과적 설명이다. 귀인은 제 사회심리적 현상의 근간이며 常識的 認識論 또는 主觀的 妥當性이라는 주요한 문제를 내포한다. 그러나 귀인이론 및 연구는 일상적인 사회적 행위나 귀인을 지나치게 개인적이며 非社會的인 수준에서 다루어 왔다. 따라서 귀인이론 및 연구는 개인적 수준이나 객관적 수준 이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상인은 개인적 관계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또는 타인이 속한 집단간의 사회적 관계 및 그 속성을 근거로하여 사회적 현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귀인 연구자들은 집단간 수준에서의 귀인이 개인의 개별적 속성 뿐 아니라 사회적 속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검증하고 있다. 社會的 集團化는 우리가, 자신이나 타인의 社會的 正體 및 社會的 現實을 인식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귀인은 귀인주체나 귀인대상이 내포하는 社會的 表象이나 社會的 範疇와 관련되어 있다. 귀인이론은 사회적 표상과 사회적 범주 그리고 집단간 상호작용을 수용함으로써 일상인의 사회적 세계에 보다 근접하는 일상적 인과귀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

### I. 歸因理論에 대한 비판

사회적인 행위자가 일상생활내에서 객관적인 또는 과학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려한다는 전제는 명백한 認識論的 誤謬이다. 그러나 귀인연구자들은 과학적인 귀인과 일상적인 귀인을 자주 혼동하고 있다. 이들은 귀인이론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常識心理學을 標榜했면서도 常識的 認識論과 形式的 認識論을 혼동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혼동으로 인해 귀인이론가들은 상식적 귀인의 특성을 적절하게 특징짓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식심리학의 정연한 이론 체계를 구성하지도 못했다(Calder, 1977). 최근에는 그동안 상식심리학의 명분 위에서 발전해온 귀인이론에 대한 반성적 비판이 加重되고 있다. 귀인이론의 재검토를 위한 비판적 반성은 사회적 행위자가 일상의 귀인과

정에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추구하게 되는 ‘社會的 現實’의 특성을 객관적 인식론과 대비시켜 비교·검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즉 귀인이론에 대한 검토에서 선행적으로 명백히 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歸因者가 행위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현실의 속성이 어떠한 것이냐를 확인하는 일일 것이다.

期待不一致假說(expectancy disconfirmation hypothesis)에 따르면 知覺者의 기대와 부합되지 않은 事象이나 자극의 非典型性(atypicality)은 귀인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단서이다. 즉 지각자는 예기치 않은 자극, 부정적인 자극, 신기한 자극에 대면할 때 귀인할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예; Pittman & D'Agostino, 1985). 그렇다면 먼저, 귀인하는 사회적 행위자는 기대불일치와 이와 관련된 부적응적 統制喪失狀況에 대면하여 어떠한 성질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또한 더욱 중요하게 다루는가를 분명히해야 할 것이다. 즉 이들이 추구하는 정보가 주관적이며 사회적인 가치를 지닌 성질의 정보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脫主觀的인, 脫社會的인 형태 즉 객관적인 현실을 價値-中立的인 입장에서 自己適應과 무관하게 추구하는 것인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전자의 정보를 후자의 정보보다 주요하게 추구한다면 ‘사회적 행위자’의 귀인은 형식적 인식원리와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 즉 후자의 정보를 전자보다 우선한다면 사회적 행위자의 귀인은 과학적 귀인, 객관적 귀인의 성격을 더 많이 함유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귀인이론가들은 사회적 행위자가 주요시하는 사회적 현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객관적인 현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Heider(1958)는 귀인의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귀인자는 사회적 환경을 일관성있게 설명할 수 있는 不變의 因果性 또는 普遍的인 行爲作爲要因을 파악하는데 주력한다고 전제하였다. 또한 Kelley(1967)는 귀인이론의 구성과정에서 행위의 원인을 파악하는 다양한 귀인자간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보편성과 일관성을 띠는 行爲原因因子를 파악하고 명세화하는데 주관심을 둔 점으로 미루어 상식적 인식론보다는 형식적 인식론을 경험적으로 구축하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Kelley는 共變模型에서 지각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우선해서 추구하며 그것이 결여될 때에 비로소 사회적인 정보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Kelley는 일상적인 인과지각에서 행위의 一貫性情報 뿐만 아니라 행위자간의 行爲合致性을 共變的 因果推論의 주요한 단서로 파악하고 있으나 행위자가 아닌 因果知覺者 또는 觀察者간의 合意性 또는 특정집단성원의 歸因一致性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히 다루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개인동기적 성격을 띤 주관적 귀인보다는 과학자의 인과귀인에 준하는 형식적 인과논리모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Kelley는 귀인을 自我欲求無關的, 中立的 因果推論의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개인의 內變量分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적 인식론에 보다 근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논의에서 우리는 귀인이론에서 대표적인 Heider 와 Kelley 의 전제 및 모형이 객관적, 분석적, 과학적, 형식적 논리모형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기존 귀인이론의 두번째 특성으로는 귀인자의 귀인모형에서 社會的 行爲決定論보다는 個人的 行爲作爲論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기존 귀인이론에서는 행위의 원인을 파악하는 귀인자가 일차적으로 개인내에 구축된 心性, 心理特性 또는 행위경향성 등과 같은 성격요인을 파악하려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즉 귀인자는 內-外次元에서 外的 次元보다는 內的 次元을, 安定-不安定次元에서 不安定次元보다는 安定次元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다. 물론 귀인연구자들은 이러한 귀인이 불가능할 때 즉 내적 차원이나 불안정 차원의 정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귀인자들이 자동적으로 외적인 또는 불안정한 차원의 정보에 주목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자의 정보가 결핍될 때나 취하는 부차적 정보에 불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들은 가능한한 외부의 또는 사회의 제 영향력을 漸減시키는 과정에서 결국 행위의 진정한 원인을 알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내적 원인은 행위자 개인에게 독특한 것이고 각종 규범에서 이탈된 것이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며, 이와 반대로 외적 원인은 개인에게 독특하지 않은 것이고 규범을 반영한 데 지나지 않으며 개인의 자유 의사와 상관없이 부과된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개인의 개성이야말로 사회 심리학의 原型(genotype)이며 사회적 매트릭스는 表現型(phenotype)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Tajfel, 1981, p.31). 이와 같이 대표적인 귀인이론가들은 일상인이 행위의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 다른 어떤 원인보다 개인내적 원인을 우선시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하면 Jones 와 Davis (1965)는 타인의 행동을 근거로 그의 기질을 추론하는 조건에 대해 논하면서 지각자는 특정인의 행위가 사회적 규범에서 이탈하면 될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행위자의 개인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귀인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개인의 의도를 반영하는 수준이 높은 행위는 행위자의 안정된 내적 속성을 반영한다하여 의도가 곧 개인속성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지각자가 귀인한 개인의 기질은 개성(idiosyncrasy)에 근거하며 이는 단순한 사회적 역할과는 對峙된다고 보는 것이다. Jones 와 Davis 는 사회규범에서의 이탈이야말로 행위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또는 타인들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인 역할은 반드시 이탈하지 않고서도 가능하고 이탈자체도 반드시 개인적 속성은 아니다. 또한 개인

적 속성이 사회적 속성보다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단언 할 수도 없다(Deschamps, 1983, p 225). Steiner 와 Field(1960)의 연구에서처럼 개인의 사회적 속성 역시 개인적인 속성정도의 정보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일상적 귀인자는 전문적 과학자가 아닌 일상적 과학자에 불과하므로 인과추리시 논리적 취약성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Hansen, 1980, 1985). 그러나 기존 귀인이론의 세번째 문제는, 귀인자는 전문적 과학자와는 달리 인과귀인상의 논리적 취약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범적 귀인모형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적 귀인자를 과학적 귀인자로 가정한다는 점이다. 일상인은 인지적·동기적 한계내에서 지각하며 귀인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心理的 眺望의 한계 또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일상인은 귀인연구자들이 칭하는 오류 또는 편향내에서 귀인하며 사회적 현실을 파악한다. 일상인은 문자 그대로 객관적이며 가치-중립적이기보다 오히려 특정한 방향을 지향하여 가치-합축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差別的 歸因, 偏頗的 歸因, 固定觀念的 歸因이 가치-중립적 귀인보다 더 일상적인 귀인유형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귀인이론의 대상이 컴퓨터가 아닌 일상적 행위자라면 귀인상의 오류와 비오류 즉 인과추론상의 眞과 爲간을 회하는 기준도 재고되어야 한다(표 1 참조). 객관적인 인과추론에 적합한 절대적인 眞爲의 준거로써 일상인의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眞爲를 분류한 것 자체가 귀인연구자의 과도한 과학-지향-오류(science-serving-bias)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귀인연구자는 이와같이 일상인의 상식적 귀인에 대해 지나치게 객관적인 心象을 고수해 왔으며 이에 따라 심리적이거나 사회-심리적 현실을 가능한 한 漸減시키는 한편 객관적인 현실을 가능한 한 漸增시키는 것이 곧 상식심리학인 귀인현상의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과학지향적 동식을 전제하는 것 같다. 오류나 편파가 곧 심리적 또는 사회-심리적 현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이들

<표 1> 형식적 인식론과 상식적 인식론의 상대적 차이

인식론의 유형	행위 영향 유형	인과추리의 정보유형	귀인결과의 평가유형
형식적 인식론	객관적 현실	객관적 정보	절대적 眞
		↑ 사실적 정보	↓ 절대적 僞
상식적 인식론	主·客觀的 현실	심리·논리적 정보	합리적 眞 ↑ ↓ 합리적 僞
	집합적·사회적 현실	사회·심리적 정보	

이론 자체의 성격이 개인적이다. 인(an individual qua individual)의 설명하는

귀인이론은 전통적으로 매우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社會的 知覺을 체계화하는데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귀인이론의 바탕은 개별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인이론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특히 非社會的이다(Hewstone & Jaspars, 1982 b, 2-3). 첫째로 이론 자체의 성격이 개인적이다. 귀인이론은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an individual qua individual)의 설명하는 수준에 한정되어 있다. 즉 개인을 넘어선 집단간 변인 또는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변인은 귀인이론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둘째로 귀인이론을 검증하는 방식이 개인중심적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타인과 의논하는 과정을 도입하지 않고 피험자 혼자서 질문지에 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인이 일상생활에서 귀인할 때에는 다른 사회적 판단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호의사소통 등을 통한 합의검증방식(consensual validation)을 택하게 마련이다. 귀인을 포함한 대개의 사회적 판단은 개인의 독자적인 심사 숙고보다 집단 논의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셋째로 귀인 실험에서 사용하는 자료가 지나치게 人爲的이라는 점에서 非社會的이다. 어떤 구체적인 이론상의 문제에 답하는 데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간략한 자료가 유용할지 모르지만(예: Kelley 이론에 대한 McArthur의 검증) 이는 결코 귀인실험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최근들어 귀인이론가들은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자 귀인이론을 보다 사회지향적인 영역으로 확대(예: the model, the self, presentation model, the linguistic-competence model, the group-identity model)시키려는 시도가 표출되고 있다(Antaki, 1985).

## II. 社會的 帰因模型

Deschamps(1983)는 社會的 表象과 社會的 範疇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사회적 귀인모형을 제안하면서 귀인의 주체와 대상 및 귀인의 단서정보가 내포하는 제 사회적 속성에 따른 귀인의 단순성과 즉각성 그리고 예측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 社會的 表象

사회적 표상의 문제는 固定觀念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개념은 고정관념보다 더 광범위한 사회적 신념을 내포하며 偏頗되거나 歪曲된 世界가 아닌 合意된

世界(the consensual universe, Moscovici, 1981)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表象(re-presentation)은 기존의 우리 자신을 또는 우리 세계를 방해하는 낯선 諸 事象을 방해되지 않는 것으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회적 행위자는 친숙치 않은 외부의 사상을 친숙한 내부의 사상으로 표상함으로써 친숙치 못한 사상이 초래하는 심리적 불편감 및 공포감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자가 사회적 표상을 구축하는 목표는 세계에서 心象이나 意味를 抽象化해내고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며 나아가서는 이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Moscovici 는 귀인을 사회적 표상의 작동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사회적 표상은 새로운 사회적 현실을 발견하며 구성함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認識의 支脈이다. 개인과 사회적 현실간의 교량이 되는 인식의 지맥 즉 사회적 표상위에서 개별적 심리현상과 집합적 사회현상간의 接點을 설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현실에 대한 사회적 행위자의 구성체계를 媒介할 수 있다 (Berger & Luckman, 1967). Doise (1978)는 집단간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사회적 표상의 개념이 가지는 중요성과 기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회적 표상은 집단간 상호작용에서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집단간 관계의 속성에 따라 사회적 표상의 내용과 형식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한편 사회적 표상의 제반 속성에 따라 집단간 관계의 성격이 규정되고 그 발전양상을 豫期하고 正當化하고 選擇함으로써 집단간 관계의 차후 속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표상은 選擇의인 기능, 正當化하는 기능, 豫期的인 기능을 갖는다. 세가지 기능 중 귀인과 더욱 밀접한 것은 선택적인 기능 (예; Hewstone, Jaspars & Lalljee, 1982)인데 이는 지각자가 지니고 있는 특정한 사회적 표상에 따라 행위의 원인 및 양상을 설명하거나 그것들을 결정짓는 기능을 지칭한다. 이러한 기능은 귀인이론을 객관적이거나 개인지향적인데서 보다 사회적이거나 집단지향적인 방향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사회적 표상은 집단간 관계에 대한 先驗的인 인과체마를 구성함으로써 후속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표상은 내용과 과정의 양자를 포함한다. 표상의 내용은 대상에 대한 의견이며 이 의견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내포한다. 이와 같이 표상은 행위에 대한 평가의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규범이 적용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범주의 체계를 제공한다. 표상의 과정은 주로 범주와 관련된다.

### 社會的 範疇

Jones 와 McGillis (1976)는 귀인과정에서 사회적 범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귀인의 주체가 귀인의 대상에 대해 지닐 수 있는 기대를 두가지 - 範疇基底

의 기대, 標的基底的 기대—로 구분하였다. 두 가지 기대 중에서 특히 범주기저적 기대는 귀인자가 귀인하려는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정보를 미리 알고 있을 때 作動하며 사회적 범주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한편 표적기저적 기대는 주로 개인간 상호작용시 작동하며 Kelley의 一貫性情報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즉 표적기저적 기대는 귀인의 대상인 특정한 행위자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산출된 것이다.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ization)는 사회적 환경을 분할하고 분류하며 정돈함으로써 지각자로 하여금 제반 사회적 정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도구이다. 사회적 범주는 단순히 주어진 사회적 환경을 체계화하는 것 뿐 아니라 自己-參照(self-reference)의 체계도 제시해 준다(Tajfel & Turner, 1979, p. 40). 지각자는 무수한 情報群을 표상할 때 사회적 범주에 따라 개념간의 경계를 설정하거나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개별정보의 생생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불명확하며 엄청난 양의 정보를 구조화하여 보다 용이하게 操作할 수 있다.

사회인지심리학자들은 물리적인 범주와 사회적인 범주간의 이론적인 연속선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범주는 집단간 행동, 사회적 판단, 範疇差別化, 社會的正體의 형성, 그리고 固定觀念의 문제로 확산되었다(Arcuri, 1982). 지각자는 사회적 현실을 표상할 때 범주를 근거로 개념간의 경계를 추출하며 개념간의 경계에 준해서 애매한 사회환경을 구조화하여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범주와 관련된 주요한 가설중에서 한가지는 顯著化效果(the accentuation effect)인데, 현저화 효과란 지각대상이 동질적인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類似性을, 이질적인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相異性을 지각대상의 실재속성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다. 현저화 효과는 지각자가 특정한 범주를 주관적으로 중요시하거나 판단하려는 대상에 익숙할 때 더욱 자주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Malpass & Kravitz, 1969). 범주차별화(category differentiation)는 內集團과 外集團의 속성을 다르게 지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가치와 연합되어 있다. 지각자는 사회적 범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의미한 유형으로 취합하며 그 자신 또한 특정한 유형에 속한다고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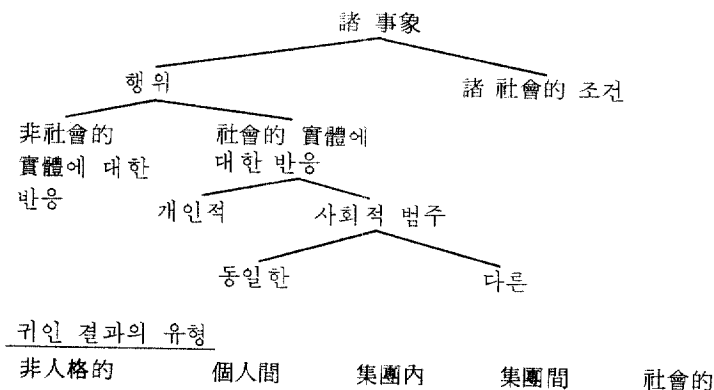
일상적인 社會的思考는 이성보다는 관습과 기억에 의존한다. 또한 사회적 사고는 現狀的인 知的, 知覺의 구조보다는 慣習的인 知的, 知覺의 구조에 의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사회적 사고를 하는 사회적 귀인자는 특정인을 직접 대하기 전에 그의 사회적 속성에 대한 기억에 준해서 이미 그를

판단하는 등 결론을 전제보다 우선하여 귀인하기도 한다. 사회적 표상과 사회적 범주는 귀인을 일상적인 사회적 사고 및 사회적 현실에 기초를 둔 집단간 관계의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적 표상, 사회적 범주와 사회적 귀인간의 관계는 지각자가 어떻게 귀인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시각이 결정되고 결정된 시각에 따라 지각자의 귀인 및 대응행위가 결정되는 식의 辨證的 原理에 따른다.

### Ⅲ. 集團間 水準上에서의 帰因

개인과 그가 처한 사회적 상황간의 상호작용은 귀인의 기본조건일 수 밖에 없다. 인간은 주어진 규칙에 順應하는 존재(rule-following animals, Harré)이기도 한 바 규칙성이란 適切性의 개념이며 적절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은 자신의 자유의사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또는 그와 관련된 집단의 규범 및 가치에 비추어 결정되기 때문이다(Tajfel, 1981, p. 36). 개인과 개인간의 제 사회적 행위는 개인들의 독자적인 의사에 기인할 뿐 아니라 제각기 소속한 집단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이 성격은 사회적 또는 집합적으로 共有하는 집단관계의 규칙에 의거한다. 이를테면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간의 갈등은 外現上으로는 동일한 事象을 자신이 소속한 집단규칙의 입장이나 집단간 관계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知覺하고 歸因하는데 기인한다(Horai, 1977).

集團間 水準(intergroup level, [그림 1] 참조)은 개인의 社會的 正體를 반영하는 동시에 귀인이론을 보다 사회적인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는, 社會的 社會心理學에서 간과할 수 없는 기본적인 수준이다. 지각자는 자신이나 타인의 행위를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해 내재화한 社會的 表象, 社會的 範疇 및 社會的



[그림 1] 因果推論의 설명수준 (Jaspars, Hewstone & Fincham, 1983, p.28)



正體에 따라 귀인하기도 한다(Hewstone, Jaspars, & Lalljee, 1982). 집단 수준은 귀인을 개인내의 관념적인 변량분석에서부터 집합적으로 공유하는 사회적 신념의 作動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諸集團關係의 사회적 기능을 근거로 諸集團成員間의 상호귀인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귀인을 사회적 상황과 고립된 단순한 인지과정으로 다루는 것보다 귀인의 사회적 기능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귀인문제를 집단수준에서 검증한 연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Steiner 와 Field (1960)는 실험보조자의 역할을 두 가지 - 실험보조자의 자유선택, 실험자의 임의할당-로 제시하고 피험자로 하여금 실험보조자가 특정 역할 또는 특정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귀인하도록 하였다. 검증 결과 피험자는 귀인시 실험보조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할당 받은 역할을 수행할 때에도 그 행위를 실험보조자의 개인내 원인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귀인자는 행위자 개인의 의도 못지 않게 행위자가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하였다. Thibaut 와 Riecken (1955)은 이 문제를 다소 다른 각도에서 보았다. 즉 지각자는 귀인시 행위자의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應從行爲의 원인을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內的인 것으로, 지위가 낮은 경우에는 外的인 것으로 다르게 귀인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Steiner 와 Field 그리고 Thibaut 와 Riecken 은 검증의 결과에서 나타난 歸因-偏向을 지각자가 행위자를 제각기 다른 집단의 成員이라고 지각하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귀인과 집단관계간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Taylor 와 Jaggi (1974)는 귀인과 종교집단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피험자는 남부인디아의 힌두교신자이며 연구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힌두교 신자에게 힌두교신자와 모슬렘교신자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의 결과 힌두교 신자는 자신과 동일한 집단성원인 힌두교인의 행위를 모슬렘교인의 행위보다 더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부분에서는 피험자에게 일련의 문장을 제시하고서 주인공의 행위에 대해 귀인하도록 요청하였다. 문장내 주인공의 종교는 힌두교이거나 모슬렘교였으며

〈표 2〉 歸因의 所在와 행위 및 행위자 유형간의 관계  
(Hewstone & Jaspars, 1982 a, p.117)

행위의 유형	內集團 成員	外集團 成員
긍정적	氣質歸因	狀況歸因
부정적	狀況歸因	氣質歸因

그가 행한 행위의 속성은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거나 하였다. 검증결과 피험자는 특히 바람직한 행위의 원인을, 주인공이 자신과 동일한 종교의 신자인 경우에는 개인내적으로 그 반대인 경우에는 외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2> 참조).

Duncan(1976)은 백인학생에게 흑인과 백인이 상호공격하는 비디오테이프를 보여주고 主役의 행동을 단순히 기술하는 동시에 공격한 이유를 추론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는 주역이 흑인인 경우에는 더욱 빈번하게 ‘난폭하다’고 기술하고 공격한 이유도 흑인공격자의 안정된 내적 기질 탓이라는 추론하는 반면, 백인인 경우에는 보다 빈번히 온건하게 기술하고 공격의 원인 또한 피치못할 상황 등의 불안정한 외적 요인 탓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Deaux 와 Emswiller(1974)는 性範疇에 따른 因果推論上的 차이를 검증하였다. Hewstone 과 Jaspars(1983)는 McArthur 의 실험을 사회적 수준에서 반복검증함으로써 共變模型에서 合意情報의 적용한계를 규명하였다. 즉 합의정보는 지각자가 행위자를 자신과 유사한 또는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 할 때에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Hewstone 과 Jaspars(1982 b)는 귀인 판단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Hewstone, Jaspars 그리고 Lalljee(1982)는 특정집단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 집단성원에 대한 인과지각이 달라지며 귀인은 개인내 분량분석적 기능 뿐 아니라 귀인자가 속한 집단의 긍정적인 측면을 창출, 유지, 강화하는 기능에 의거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처럼 귀인자는 자신 및 타인의 사회적 정체를 자각할 때 內集團에 대한 긍정성을 提高하려는 내집단애호전략을 활용한다(group-serving attribution, Taylor & Doria, 1979). 이러한 內集團-外集團 偏向은 개인수준에서 나타나는 行爲者-觀察者 偏向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편향만으로는 집단의 제 사회적 속성에 따라 변화하는 귀인결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社會的 歸因模型에서는 집단속성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범주으로써 모든 外集團의 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귀인하지 않는 이유를 규명코자 한다. 귀인하려는 대상이나 주체의 社會的 正體感이 각성되는 조건하에서 귀인자가 행위의 원인을 개인내 속성이 아닌 제 사회적 속성(예 ; 행위자가 內集團成員인가 아니면 外集團成員인가, 행위자 및 관찰자의 소속집단이 사회에서 점유하는 위치는 상위권인가 하위권인가 또는 중위권인가, 행위자들이 동일집단에 속하는가 아니면 이질집단에 속하는가, 소속집단의 대표적인 규범, 가치 및 속성은 어떠한가, 귀인자의 집단과 행위자의 집단간 관계는 갈등 또는 경쟁관계인가

아니면 협조관계인가)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귀인할 가능성 또한 증대될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적 정체감에 근거한 귀인은 내집단과 외집단이 갈등 또는 대항의 사태에 처하고 있을 때나 많은 內集團成員이 동석하고 있을 때 (Doise, 1978), 특정집단이 어떠한 이유로 독특하게 두드러져 보일 때 (McGuire & Padawer-Singer, 1976), 집단내의 동질성을 강조할 때 (Wilder, 1978), 동일한 범주성원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변인-유사성, 근접성 및 공동운명성-이 작용할 때 (Campbell, 1958), 개인이 내집단의 대표로 행동할 때 (White, 1977), 개인이 처한 사태 및 그의 행위가 내집단의 중요한 규범과 연관될 때 (Boyanowsky & Allen, 1973)에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 IV. 맺 음 말

귀인연구자들은 '사회적 현실'을 더 이상 객관적 현실의 왜곡에 불과하다고 罵倒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귀인하려는 관찰자의, 귀인의 대상인 행위자의 기본조건임을 인정하고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 일상적인 귀인은 고립된 개인의 또는 社會的 原始人(social primitive)의 獨自的인 정보처리일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지각자는 백지상태나 眞空狀態에서 中性的인 또는 價値-中立的인 행위에 대해 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귀인자는 행위자체나 행위사태의 객관적 정보만을 관찰하여 귀인하기보다 행위자에 내재되어있다고 표상한 사회적 속성에 따라 여타의 구체적인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도 귀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귀인현상을 규명함에 있어 행위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행위하는가', '누가 귀인하는가'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귀인자는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행위를 동일한 사태에서 귀인하는 경우에도 행위자나 관찰자의 사회적 속성에 따라 차이 있게 심지어는 정반대로 귀인할 가능성이 常存하기 때문이다. 즉 귀인자나 행위자는 공히 社會的 思考나 社會的 現實하에 귀인하고 행위하는 것이다. 귀인자는 귀인의 단서가 되는 정보를 기존의 사회적 표상과 사회적 범주에 준해서 자신의 기존 구조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취사선택하기도 한다. 귀인은 論理的·分析的·歸納的 과정만은 아니다. 社會的·解釋的·演繹的 과정이기도 하다. 귀인은 因果分析의 과정인 동시에 사회적 표상이 작동되는 因果統合의 과정이며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고 유지하거나 그것이 互解되었을 때 재정립하고자 사용하는 '社會的 方案(social devices, Semin & Manstead, 1983)'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社會的 社會心理學(예; Taylor & Brown, 1983)을 標榜하는 일군의 연구자들은 사회심리적 현실(sociopsychological reality)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崔筍英(1987). 社會的인 관계내에서의 歸因問題, 중앙대학교대학원연구논집, 6, 92-105.
- Antaki, C.(1985). Ordinary explanation in conversation : Causal structures and their defe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213-230.
- Arcuri, L.(1982). Three patterns of social categorization in attribution memor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271-282.
- Berger, P.L., & Luckmann, T.(1967).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Harmondsworth : Penguin.
- Boyanowsky, E.O., & Allen, V.L.(1973). Ingroup norms and self identity as determinants of discriminatory behaviou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408-418.
- Calder, B.J.(1977). Endogenous-exogenous versus internal-external attributions :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ttribution the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 400-406.
- Campbell, D.T.(1958). Common fate, similarity and other indices of the status of aggregates of persons as social entities. *Behavioural Science*, 3, 14-25.
- Deaux, E., & Emswiller, T.(1974). Explanations of successful performance on -sex-linked tasks : What is skill for the male is luck for the fem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80-85.
- Deschamps, J-C.(1983). Social attribution. In J. Jaspars, F.D. Fincham & M. Hewstone(Eds.),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 Conceptual, developmental, and social dimensions*. Academic Press.
- Doise, W.(1978). *Groups and individuals : Explanation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ncan, B.L.(1976). Differential social perception and attribution of inter-group violence : Testing the lower limits of stereotyping of blac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590-598.
- Hansen, R.D.(1980). Commonsense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996-1009.
- Hansen, R.D.(1985). Cognitive economy and commonsense attribution

- processiong. In J.H.Harvey & G. Weary(Eds.), *Attribution*. Academic Press.
-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Wiley.
- Hewstone, M., & Jaspars, J.(1982a). Inter-group relations and attribution processes. In H. Tajfel(Ed.),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wstone, M., & Jaspars, J.(1982b). Explanations for racial discrimination : The effect of group discussion on intergroup attribu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1-16.
- Hewstone, M., & Jaspars, J.(1983). A re-examination of the roles of consensus, consistency and distinctiveness : Kelley's cube revisited.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41-50.
- Hewstone, M., Jaspars, J., & Lalljee, M.(1982). Social representations, social attribution and social identity : The intergroup images of public and comprehensive schoolboy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241-269.
- Horai, J.(1977). Attributional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33, 88-100.
- Jaspars, J., Hewstone, M., & Fincham, F.D.(1983).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 The state of the art. In J. Jaspars, F.D.Fincham & M.Hewstone (Eds.),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 Conceptual, developmental and social dimensions*. Academic Press.
- Jones, E.E., & Davis, K.E.(1965). From acts to disposition :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L.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 Academic Press.
- Jones, E.E., & McGillis, D.(1976). Correspondent inferences and the attribution cube : A comparative reappraisal. In J.H.Harvey, W.J. Ickes & R.F.Kidd(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1)*. Erlbaum.
- Kelley, H.H.(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15).
- Malpass, R., & Kravitz, L.(1969). Recognition for faces of own and other ra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330-334.
- McGuire, W.J., & Padawer-Singer, A.(1976). Trait salience in the spontaneous self 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 Moscovici, S. (1981). On social representations. In J.P. Forgas (Ed.), *Social cognition: perspectives on everyday understanding*. Academic Press.
- Pittman, T.S., & D'Agostino, P.R. (1985). Motivation and attribution: The effects of control deprivation on subsequent information processing. In J.H. Harvey & G. Weary (Eds.), *Attribution*. Academic Press.
- Semin, G., & Manstead, A.S.R. (1983). *The accountability of conduct: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Academic Press.
- Steiner, I.D. (1974). Whatever happened to the group in social psycholog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94-108.
- Steiner, I.D., & Field, W.I. (1960). Role assignment and interpersonal influ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 239-245.
-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behaviour*. Academic Press.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 Turner, J.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lifornia: Brookscole.
- Taylor, D.M., & Brown, R.J. (1979). Towards a more social social psychology?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 173-180.
- Taylor, D.M., & Doria, J.R. (1979). *Self-serving and group-serving bias in attribution*. McGill University. Montreal, Mimeo.
- Taylor, D.M., & Jaggi, V. (1974). Ethno-centrism and causal attribution in a South Indian contex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 162-171.
- Thibaut, T.W., & Riecken, H.W. (1955). Som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the perception of social causality. *Journal of Personality*, 24, 113-133.
- White, M.J. (1977). Counternormative behaviour as influenced by de-individualizing conditions and reference group salienc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3, 75-90.
- Wilder, D.A. (1978). Reduction of intergroup discrimination through individuation of the out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361-1374.

## ABSTRACT

### **A Critical Examination of Attribution Theories and a Proposal of an Expanded Model of Individuo—Social Level Theories**

**Choi, Sun—Yo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Attribution theory has been concerned with the causal explanations which individuals construct for their own behavior and that of others. As a theory concerned with individuals' causal explanations of events, attribution theory lies at the heart of many social psychological phenomena. Attribution theory bears on the central issue of naive epistemology or subjective validity.

However,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have been criticized for being too individualistic, asocial, in their treatment of social behavior. Then it must be extended to areas other than that of interpersonal and objective level. For human knows the social world, not simply in terms of interpersonal interaction, but also in terms of intergroup of social relations.

Studies at this intergroup level have demonstrated that attribution activities are made not simply as a function of ones' unique individuality, but also in relation to their respective social group memberships. Social groupings are fundamental to our social identity and to the social reality that we actively cognize. They must therefore be related to the process of social understanding—the very backbone of attribution theory. Thus the attribution activity is based on social representations and social categorizations in relation to social group. All three of these additions—social representations, social categorizations and intergroup interaction—to attribution theory make it more adequate theory of causal attribution in the social world.